

【논문】

북한의 철학연구 동향 및 특성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

전 미 영**

【주제분류】 북한철학

【주요어】 북한, 북한철학, 철학연구, 북한학, 북한철학사

【요약문】 이 연구는 북한 철학분야의 학문체계 및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먼저 북한 철학분야의 연구기반과 철학의 분류 방식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와 다른 북한 철학의 특징적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와 『철학연구』라는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철학학술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 철학의 연구 성과와 그 흐름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북한의 철학연구 분야에서 조선철학, 세계철학, 미학, 윤리학, 심리학, 논리학, 종교학 분야의 연구들이 나름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일정한 연구 성과물들을 도출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북한철학의 제 분야들이 유물론적 시각과 주체철학의 관점에 국한됨으로써 학문적 논의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에서 철학연구가 본격화되던 60년대 초반부터 학술적 연구의 방향이 ‘당 정책과 부합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할 것과 함께 철학자는 ‘사상적 전사’가 되어야 할 것을 명시한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KRF-2005-079-BM0005).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I.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북한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사회에 관한 기초연구 분야는 취약한 실정이다. 북한의 학술분야에 관한 연구도 많은 영역이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철학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 철학 연구의 경우는 주체사상 연구와 동일시되어 이데올로기적 연구와 혼재되어 논의되거나, 주체철학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1987년 북한에서의 『조선철학사』 출간을 계기로 남한 철학계가 북한의 조선철학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조선철학사의 몇몇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북한 학술분야에 관한 연구가 우리사회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먼저, 북한사회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북한사회에 순수한 학문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과 함께 부정적인 결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의 사회문화 영역은 그 독자성을 상실한 채 정치권력에 의해 도구화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학문 분야 역시 이러한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대학 교재들만을 일별해보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다른 북한의 학문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술분야 역시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학술분야의 기본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의 학문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학문분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앞으로 남북통합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식기반과 그 내용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사상의 강국’이라고 자부하며 사상교양을 지배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철학연구의 현주소를 규명하는 일이야말로 북한사회의 사상적 토대를 파악하기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북한 철학의 연구기반 및 학문분류체계를 규명해보고 각 분야별로 북한 철학계가 생산해 낸 연구 성과들을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논문에서는 북한 철학분야의 연구 성과 중 일반철학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연구의 범위를 일반철학분야로 한정 짓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북한 연구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 철학의 연구가 주로 주체철학 연구에 집중됨으로써 북한의 일반철학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분단 후 북한 철학계는 ‘조선철학’, 즉 우리의 전통철학에 대한 연구 및 세계철학에 대한 연구에도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며, 여타의 철학 하위분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못했던 북한의 일반철학의 연구 성과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 철학연구의 실제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북한의 대표적인 철학 학술지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편)¹⁾와 『철학연구』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말까지의

국내외에서 입수 가능한 논문 1,606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편)』와 『철학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철학 학술지이다. 물론 70년대 창간된 사회과학원의 격월간 기관지 『사회과학』과 부정기 학술지인 『철학논문집』에도 철학 논문이 실리기는 하나 이들 학술지의 경우는 논문 게재 편수도 소략할 뿐 아니라, 논문의 성격에 있어서도 다분히 정치선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철학분야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편)』와 『철학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1956년 6월 창간되어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²⁾ 이 논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철학 관련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창간 때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 편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철학분야의 논문은 통합본으로 출판된 시기에는 각각 논문주제를 검토하여 철학분야의 논문만 발췌하였으며, 분야별로 출판된 경우에는 <역사·철학>편, <철학·경제학> 편의 철학논문만을, 그리고 <철학> 편으로 간행된 시기에는 <철학> 편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외에서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철학논문 512편 중 일반철학 관련 논문 200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술지 『철학연구』는 1962년 4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다. 『철학연구』의 학술지 내용구성을 보면, 간행 초기 62년부터 64년까지의 논문집 구성은³⁾ ‘축하문’, ‘권두언’, ‘논문’, ‘강좌’, ‘질의응답’, ‘철학자 소개’, ‘자료’, ‘학계소식’ 등을 다양하게 실

1)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표 1>에서 보듯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학술지의 분야별 편제에 변화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철학관련 논문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편)로 칭하기로 한다.

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2005년 12월 현재 누계 360호를 기록하고 있다.

3) 초기 『철학연구』가 67년 말, 또는 68년 초까지는 간행된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64년까지만 입수되었음. 부록 <자료 2> 참조.

<표 1>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시기별 편제 변화

시기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학문분야별 간행 편제	철학논문 수록 논문집 권수
1956 6월~1959 1월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통합본	1
1959 2호~1962 2호	사회과학분야 분리	
62년(통권15호) ~64년 3월(통권20호)	(미확인)	
1964 4월~1964년 11월	세부분야별로 발행	1
	남조선 연구 외국어 문 경제학 역사·철학 지리학	
64년12월(통권29호) ~1982년 2호(148호)	(미확인)	
1982년 3호~1984년 1호	사회과학 통합 편	1
84년 2호(통권 151호) ~1990(통권 186호)	(미확인)	1
1991년 1호~1993년 39권	사회과학 내에서 분야별 분류	2
	철학 역사·법학 경제학 어문학	
1994년 40권~1997년 43권	각 분야별로 각각 권 호 발행	15
	철학 역사·법학 경제학 어문학	
1998년 44권~2004년 50권	철학과 경제학 합본	28
	철학·경제학 역사·법학 어문학	

고 있었으나, 86년에 재 간행 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는 논문과 강좌로만 구성되었다.4) 논문 이외에 ‘강좌’, ‘질의응답’, ‘자료’ 등도 학술논문에 버금가는 학문적 논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축하문’, ‘권두언’, ‘학계소식’을 제외한 모든 형식의 내용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4) 논문 하단의 <자료 2>, <자료 3> 참조.

논문분석을 위해 국·내외에서 입수한 『철학연구』는 창간호부터 2004년까지의 72권이다. 1962년 창간된 『철학연구』는 통상 연간 4회 발행되고 있는데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1986년 복간되었음을 논문집 서지사항에 기록된 누계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87년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1호와 2호만이 발행되었음을 누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철학연구』의 입수 현황의 구

<표 2> 『철학연구』 분석대상 논문 현황 (입수한 논문 ○표시)

연도	출판사	1호	2호	3호	4호
1962/4호	과학원출판사		○	○	○
1963/4호	과학원출판사	○	○	○	
1964/4호	과학원출판사			○	
1965/4호	과학원출판사				
1966/4호	과학원출판사				
1967/4호	과학원출판사				
1968/1호	과학원출판사		미발간	미발간	미발간
1968~85:정간		미발간	미발간	미발간	미발간
1986/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1987/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미발간	미발간
1988/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89/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92/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93/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94/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95/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96/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97/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98/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1999/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2000/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2001/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2002/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2003/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2004/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	○

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입수한 『철학연구』의 논문 1,094편 중 366편의 일반철학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북한 철학의 연구기반을 검토해 보고 북한 철학의 분류체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철학에 관한 우리 학계의 학문분류는 한국의 철학분류 방식에 준하여 분류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제 북한철학을 분류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⁵⁾ 본 연구에서는 북한철학의 분류를 북한식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북한에서 학술적 성과를 매년 정리·발표한 『조선중앙연감』을 비롯하여,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도서분류 목록』 등 북한사회에서 발간된 학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북한 철학의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 철학 학술지의 철학논문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연구현황을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해방 후 현재까지의 북한 철학 연구의 변화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철학의 연구기반 및 분류체계

1. 북한 철학의 연구기반

1) 철학의 교육편제

북한의 최초의 종합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⁶⁾은 1946년 개교당시 7

-
- 5) 북한 철학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국내 연구는 대체로 이훈, “북한철학의 흐름”, 『시대와 철학』, 5권 2호. 1994에서 정리된 틀을 활용하고 있다. 이 분류 틀에 따르면, 북한의 철학을 크게 ‘한국철학’, ‘서양철학’, ‘마르크스주의’, ‘주체사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 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1946. 5. 25)에 의거하여 1946년 10월 1일 개교하였다

학부 24학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사회과학분야는 문학부(사학과, 문학과, 교육학과 포함)와 법합부(법학과, 경제학과)가 설치되었다. 이후 1949년 신학기에 10학부 24개 강좌로 확대되면서 역사학부 내에 철학과가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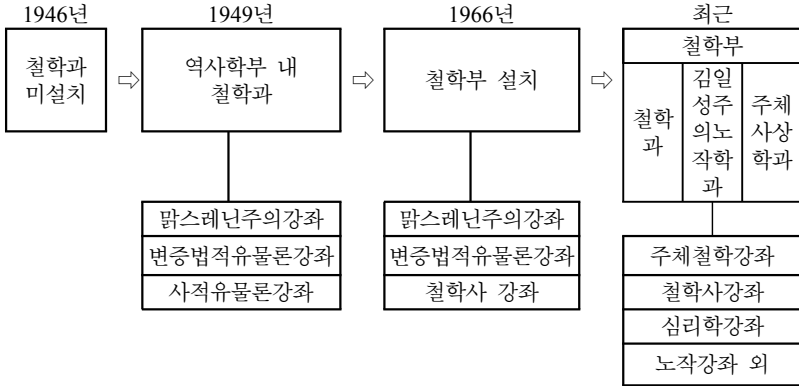
『조선중앙연감』은 1966년 김일성대학 20주년을 기념하여 김일성대학 학제를 발표하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대학 사회과학학부로 경제학부, 철학부, 법학부, 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가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66년 이전에 철학과가 철학부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001년 들어 김일성대학의 편제는 새롭게 개편되었는데, 2001년 2월 5일자 『조선신보』와 같은 달 13일자 『민주조선』 기사에 따르면 김일성대학에 법률대학과 문과대학, 그리고 컴퓨터 대학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16개 학부에서 3개 단과대학, 13개 학부, 34개 학과, 200여 강좌로 편성되었다.

2003년에는 모든 대학에서 <김정일노작 강좌>들이 새로 설치되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발표한 노작들을 기본으로 5건의 노작해설 제강과 5건의 교수조치들이 대학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및 김형직사범대에 정치사상과목 교원을 위한 재교육기지를 꾸렸다고 한다. 점차 북한의 고등교육분야에서 정치사상교육 내용은 김정일의 선군혁명사상과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체철학>을 비롯한 정치사상과목 내용을 선군혁명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전개해나가고 있다.

7) 『조선중앙연감』(1966), p. 231.

<표 3>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과 편제 변화⁸⁾



2) 철학 연구기관

북한의 학술기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이하 과학원)은 1952년 10월 9일 내각 결정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으며 동년 12월 1일 개원하였다. 북한의 과학원은 “공화국의 이론과학과 응용과학의 전반적 발전을 백방으로 방조하며 인류의 과학적 성과를 연구하여 발전시킨다.”는 임무를 띠고 출범하였다. 개원 당시의 과학원의 조직은 사회과학부문, 자연 및 기술과학부문, 농학 및 의학 부문 등 3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구사업과 과학일군 양성을 위한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실험실, 강좌 등의 시설과 조직을 운영하였다.⁹⁾

과학원 개원 당시 철학연구 분야는 독립분과 연구소로 설립되지 못했으며 역사연구소의 분과 분야로 소속되어 있었다. 개원 당시 과학원 산하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소는 <역사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

8) 『김일성종합대10년사』, 『조선중앙연감』(1949~2004)를 비롯하여, 최근 편제는 『민주조선』(2001. 2. 13), 『조선신보』(2001. 2. 5) 기사 및 탈북학자와의 인터뷰 자료를 참조함.

9) 『조선중앙연감』(1954~1955), p. 454.

학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경제법학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역사연구소> 안에는 다시 ‘고대 및 중세역사연구실’, ‘근세 및 최근세사연구실’, ‘자료편찬실’, ‘철학연구실’이 구성되어 있었다.¹⁰⁾ 당시 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철학연구실 연구 성과로는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철학사> 등의 집필이 57년 완료되었다.¹¹⁾ 59년에는 <철학논문집>이 집필되었다.¹²⁾

1960년에 들어와 북한 철학연구 분야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과학원 조직개편을 통해 철학연구실은 과학원 산하 <철학연구소>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하여 당시 과학원은 <경제법학연구소>, <철학연구소>, <역사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전연구소> 등 6개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소와 공학연구소, 기계화 및 자동화연구소, 중앙금속연구소, 중앙연료연구소 등 자연과학연구소로 구성되었다.¹³⁾

1964년 과학원 산하 사회과학 관련 연구기관들은 사회과학원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1964년 2월17일 내각 결정 제11호에 의하여 사회과학부문 연구기관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관으로서 사회과학원이

10) 『조선중앙연감』, 1956, p. 131.

11) 『조선중앙연감』, 1958, p. 143.

12) 북한의 『조선중앙연감』 1954~1955년 판은 과학원 개원당시의 사회과학분야 연구소에는 역사학연구소, 물질문화사 연구소,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등 3개의 연구소가 있었으며 역사학연구소 산하에 조선고대사연구실, 조선중세사 연구실, 조선근세 및 최근세사연구실, 자료편찬실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과학원 개원 당시 철학연구실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중앙연감 1959년 판은 과학원 창설의 내력을 언급하여 개원당시의 사회과학분야에는 본문에 언급한 대로 경제연구소, 역사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가 있었으며 역사연구소 산하에 철학연구실이 존재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전 자료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측의 공식적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과학원 개원 당시부터 철학연구실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와 역량이 미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중앙연감』(1954~1955), pp. 454-455; 『조선중앙연감』(1959), p. 218 참조.

13) 『조선중앙연감』, 1961, p. 213.

창설되었다. 사회과학원 창설을 계기로 하여 경제법학연구소가 경제연구소와 법학연구소로 분리되고 언어문학연구소가 언어학연구소와 문학연구소로 분리된다. 그 결과 사회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은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역사연구소, 철학연구소, 언어학연구소, 문학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전연구소 등 총 8개의 연구소가 만들어졌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⁴⁾

2. 북한 철학의 학문 분류체계

북한에서 철학분야의 연구 범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에 이르러서였다. 실제로 1950년대 말까지 북한 사회에서 철학은 역사학의 하위분야로써 소련철학 교재를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1960년대 초반 철학연구소가 독립하고, 이어 1960년대 중반부 김일성종합대학에 철학부가 생겨나면서 철학연구의 체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철학분야의 연구범주는 주체사상 연구와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지침으로 삼아 변증법적 유물론을 새롭게 체계화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철학분야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철학적 원리’ 등 주체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으며 일반철학 분야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1977년 『조선중앙연감』은 처음으로 철학의 학문분류를 ‘주체철학분야’와 ‘철학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철학분야의 연구내용을 보면 ‘부르주아 반동철학 비판’, ‘남조선철학 비판’, ‘부르주아 사회학 비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이후부터 철학분야의 연구 성과가 ‘주체철학’, ‘부르주아철학’, ‘조선철학’으로 분류되어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0년대 후반부터 철학 연구의 범주가 크게 이 세범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14) 본 논문 <자료 1>참조.

알 수 있다.¹⁵⁾ 북한에서 철학의 학문분류체계가 보다 구체화되어 현재의 철학체계와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써 이 시기에 오면서 북한의 철학분야는 ‘주체철학’과 ‘조선철학’, ‘세계철학’, ‘윤리학’, ‘심리학’, ‘미학’, ‘종교학’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¹⁶⁾

북한에서 철학분야의 학문적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가 정리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북한 철학의 형성이

<표 4> 『조선중앙연감』을 통해 본 철학의 분류 방식 변화

연도	철학분야 분류 방식							
~1958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1961~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조선철학						
1967~	김일성의 혁명사상, 혁명전통							
1973~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방법론적 지침으로 삼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1976~	주체철학분야	철학분야						
		부르주아철학			부르주아사회학			
1978~	주체철학	철학						
		부르주아철학	부르주아사회학		조선철학			
1979~	주체철학	철학						
		조선철학	세계철학		종교학			
1986~	주체철학	철학(‘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한 철학의 매 부문’)						
		윤리학	조선철학	세계철학	종교학			
1989~	주체철학	철학(‘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한 철학의 매 부문’)						
		조선철학	윤리학	미학	심리학	세계철학	종교학	논리학

15) 『조선중앙연감』(1977~1985) 참조.

16) 『조선중앙연감』(1986~2004) 참조.

주체사상에 의해 구조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체철학이 철학의 한 분야이기는 하나 이미 1970년대부터 주체철학은 철학 연구 분야의 상위범주로 위치지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철학의 경우,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고대 중세, 근대의 철학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철학의 경우도 역시 주체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세계의 철학사와 자본주의 철학을 연구·비판하고 있다. 윤리학, 심리학, 논리학, 미학의 경우도 주체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종교학의 경우는 “각종 종교의 반동적 본질과 기만성, 허위성 등을 과학 이론적으로 폭로·분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북한 일반철학분야의 분류체계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북한 철학의 학문 분류체계¹⁷⁾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주제
철학분야	주체철학		
	일반철학	조선철학	고대 조선철학 / 중세 조선철학 근대 조선철학
		세계철학	고전철학 / 중세 세계철학 근대 세계철학 / 마르크스주의 철학 자본주의 철학 / 동양철학
		윤리학	윤리학 일반 / 주체의 윤리학
		심리학	심리학 일반 / 주체의 심리학
		미학	미학 일반 / 주체의 미학
		논리학	논리학일반/ 주체의 논리학
		종교학	세계 3대 종교 및 미신 비판

17) 이 논문에서의 북한철학분야의 분류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도서 분류표』,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조선중앙연감』 등 북한의 실증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학문분야의 연구주제 또한 『조선중앙연

III. 북한 철학 학술지의 분야별 연구 현황

1. 철학 관련 학술지의 논문게재 현황

1)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본 연구에서 입수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각 시기별 철학분야의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6>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철학분야 논문 게재 현황

	59	62	64	82	83	84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합계
주체철학				3	2	5	26	19	32	32	35	24	25	18	17	11	15	15	17	16	312
일반철학	1	4	3				13	17	28	12	20	15	12	8	12	17	8	10	8	12	200
합계	1	4	3	3	2	5	39	36	60	44	55	39	37	26	29	28	23	25	25	28	512

본 연구에서 입수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각 시기별 철학분야의 논문은 총 512편이며 이중 주체철학 관련 논문이 312편인 반면 일반철학 분야의 논문은 200편으로 이것은 전체 철학분야 논문의 39%에 해당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실린 일반철학의 시기별 주제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감』의 사회과학분야 연구 성과에 기술된 북한 측 분류기준을 참조하였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학문 분류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조선중앙연감』은 윤리학의 연구 성과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혁명적 신념” 등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윤리학 연구 성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주제의 연구들을 윤리학의 연구 성과로 분류하였다.

<표 7>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일반철학 주제별 논문 빈도

철학분야	59	62	64	82	84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합계(%)
철학일반	1	2	1																	4(2.0)
조선철학						4	1	2	6	4		2	3	4	7	2	4	3	4	46(23.0)
세계철학		2	2			5	6	14	3	8	9	4	2	4	4	2	1	3	5	74(37.0)
윤리학						4	5	5	2	3	3	4	1	1	3	1	2		2	36(18.0)
미학							2	2	1	3	2		1			1				12(6.0)
심리학							3	5		1	1	1		1	1	2	1	2		18(9.0)
논리학												1	1	2	1		2		1	8(4.0)
종교학										1					1					2(1.0)
	1	4	3			13	17	28	12	20	15	12	8	12	17	8	10	8	12	200(10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실린 일반철학의 논문은 세계철학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조선철학(23.0%), 윤리학(18.0%), 심리학(9.0%) 순으로 게재되었다.

2) 『철학연구』

『철학연구』에 실린 논문 중 주체철학 관련 논문과 일반철학 관련 논문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철학연구』의 철학논문 게재 현황

	62	63	64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합계
주체철학	6			11	32	24	25	33	36	32	29	37	42	38	36	41	48	46	46	63	54	49	728
일반철학	33	25	10	5	6	7	6	10	7	10	14	17	9	14	18	15	16	18	35	34	26	31	366
합계	39	25	10	16	38	31	31	43	43	42	43	54	51	52	54	56	64	64	81	97	80	80	1,094

이 연구에서 입수한 『철학연구』의 논문은 총 1,094편으로 이중 주체철학 관련 논문이 728편(66.5%), 일반철학 관련 논문이 366편

(33.5%)를 차지하고 있다. 『철학연구』에 실린 일반철학 분야의 논문의 주제별 게재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철학연구』의 일반철학 분야별 논문 빈도

분야	62	63	64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합계(%)
철학일반	9	4	2											1									16(4.37)
조선철학	18	13	5		1		2		1	4	3	5	2		2	3	2		5	3	6	12	87(23.7)
세계철학	4	4	2		3	2		3	2	1	5	7	7	8	6	5	8	4	13	13	4	5	106(28.9)
윤리학		1	1	4	1	2	3	6	2	4	1	1		2	3	4	3	8	6	12	7	7	78(21.3)
미학	1	1				1		1	1		2	2		2	3	1	2	2	3		3	3	28(7.65)
심리학		1		1	1	2	1		1	1	2	1		1	4	2	1	1	6	2	2		30(8.19)
논리학	1	1									1							2	2	4	2	4	17(4.64)
종교학												1						1				2	4(1.09)
총합	33	25	10	5	6	7	6	10	7	10	14	17	9	14	18	15	16	18	35	34	26	31	366(100)

2. 철학연구의 분야별 논문 현황¹⁸⁾

1) 조선철학

세부분류	『철학연구』																총합							
	59	62	63	64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조선철학 일반						1		1		1	1					1								7
고대조선 철학														1			1					1	1	4
중세조선 철학	9	8	3				1			1	1	3			2					2	2		5	60
근대조선 철학	9	5	2							2	1	1	3	2		1	3	1	3	1	3	2	1	62
총합	18	13	5		1		2			5	5	5	11	6		4	6	6	7	7	7	7	9	133

18) 철학분야의 논문 성과는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와 『철학연구』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철학 연구의 경우 근대철학(62편), 중세철학(60편), 고대철학(4편) 순으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가 중·근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논문 중 고대시기의 조선철학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총 4편으로, “단군조선의 철학사상에 대하여”(철학연구, 1995, 제1호), “부여건국 설화에서 제기된 <기>에 관한 사상”(철학연구, 1998, 제2호), “고대 기유물론 사상과 <천부경>”(철학연구, 2003, 제3호), “고대 조선의 하늘신 숭배사상과 선인사상에 대한 고찰”(철학연구, 2004, 제1호) 등이다.¹⁹⁾

중세철학의 경우, 철학자 연구(33편), 성리학이론(26편) 순으로 연구되었다. 철학자 연구의 경우는 서경덕(6편), 정도전(5편), 이규보(4편), 이수광(4편), 이이(3편), 최승로(2편)의 순으로 게재 빈도를 보이고 있다. 서경덕에 관한 연구의 경우, “서경덕의 기 일원론적 철학에 대한 주체적 연구”(정해섭,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편), 1993, 제39권 5호), “서경덕의 기일원론 철학의 철학사적 의의”(정해섭,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경제학 편), 2003, 제49권 4호) 등 기일원론 철학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 논문들은 대체로 서경덕을 유물론적 철학자로 평가하고 있으며 “서경덕의 기 일원론적 철학이 세계 철학사 발전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중세기 세계유물론사의 명맥을 이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⁰⁾ 또한 서경덕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당시 김정일의 교시에 입각한 것으로써 서경덕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교시문 인용을 논문의 서두에 싣고 있다.

19) 조선철학 연구 분야에서 고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북한의 역사시대구분상 고대를 고조선시대까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 정해섭, “서경덕의 기 일원론적 철학의 철학사적 의의”,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경제학 편) 제49권 4호(2003), p. 32.

서경덕은 중세기에 매우 높은 수준에 오른 유물론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경덕은 16세기 우리나라의 진보적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철학의 중심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하고 우주자연에 대한 진보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²¹⁾

조선근대철학 연구의 경우, 실학자연구(28편), 실학사상(14편), 근대계몽사상(7편), 동학(5편), 위정척사(4편)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북한 근대철학의 경우, 실학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학연구의 경우는 그 진보성을 인정하는 한편, 제한성을 규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대계몽사상의 연구 또한 계몽기 사상 과 근대 부르주아사상의 애국적 성격과 그 제한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학연구의 경우는 “동학의 애국적 성격”, “계급적 기초”, “반침략 사상”에 주목하고 있다. 개별철학자 연구의 경우에는 최한기(8편), 정약용(6편), 홍대용(4편), 이익(2편) 순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한기의 경우는 “이조봉건말기에 극도로 반동화 된 유교성리학을 반대하고 기일원철학과 실학사상을 발전시켜 실학사상과 부르주아 계몽사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진보적 사상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약용은 “진보적인 양반입장에서 부패 타락한 봉건통치배의 죄행을 비판하는 과정에 철학,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진보적 견해를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²²⁾

21) 정해섭, “서경덕의 기일원적 철학에 대한 주체적 연구”,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철학·경제학 편) 제39권 5호 (1993), p.72

22) 최봉익, 『조선철학사 개요』,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p.256-286

2) 세계철학

세부분류	『철학연구』														총합									
	59	62	63	64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세계철학 일반								1	1			2			1		1	1						7
고대세계 철학									1	2				1	3	1	1		1		3	3		18
중세세계 철학									1		2					1					1		1	7
근대세계 철학	2										1	3		4				2		4		2	2	57
마르크스 주의철학	1	4	2		1									2	1	2		2	1	1	1			24
자본주의 철학	1				3	2		3	1	1	4	2	4	3	1	4	3	2	5	8	2	2		67
총합	0	4	4	4	0	4	2	0	4	7	7	19	10	15	17	10	7	12	8	15	14	7	10	113

세계철학은 일반철학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자본주의철학(65편), 근대세계철학(57편), 마르크스주의철학(24편)순으로 연구되고 있다.

먼저, 자본주의철학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본주의철학에 관한 연구의 경우, 그 대부분의 내용은 자본주의 철학 및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되어 있다. 세부 주제별로 보면, 자본주의철학 비판(23편), 자본주의 정치구조, 정치행위 비판(19편), 자본주의 사회학비판(7편), 사회민주주의 비판(7편), 자본주의사회 비판(5) 등으로 자본주의와 유럽사회민주주의의 “반동성”, “해독성”을 지적하고 있다.

근대세계철학의 경우, 공상적 사회주의(10편), 헤겔(6편), 칸트(5편), 루소(5편), 포에르바하(3편) 순으로 연구되고 있다. 연구의 방향은 대체로 근대서양철학의 진보성과 제한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1960년대 중반기까지의 연구와 이후 연구

간에 분석 시각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전시기의 경우,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대한 연구인데 반해, 이후의 경우 ‘마르크스이론의 제한성 및 문제점 비판’ 또는 ‘마르크스 이론에 관한 주체의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로 그 연구의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

한편 세계철학 분야에서 제한적이거나 동양철학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북한 철학연구 분야에서 동양 철학은 연구되지 않았다는 평가와는 다른 것으로써 동양철학에도 부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주요 논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리성철, “중세동방철학에서 세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견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사회과학 편) 39권10호, 1993
 로학회, “유가와 대비 속에서 본 목자사상연구”,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편) 42권1호, 1996
 로학회, “고대 중국에서 범치사상의 형성발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편) 42권3호, 1996
 김철만, “목가의 인식론과 그 제한성”, 『철학연구』 제3호, 2001
 최철만, “범진의 유물론사상”, 『철학연구』 제1호, 2002

이상의 동양철학에 관한 북한의 연구에는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유교적 특성, 계급적 관점, 진보적 사상이라는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목자에 관한 연구의 경우는 목자를 공자와는 달리 서민출신으로 평가하면서 목자의 계급적 출신이 그의 진보적인 사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⁴⁾ 또한 범치사상의 경우는 유가가 몰락하는 영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데 반

23) 기존의 북한철학에 대한 남한학계의 연구에서 북한에서는 중국철학이나 인도철학에 대한 연구가 한 번도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김교빈, “남북한 철학의 비교와 반성”, 『인문과학연구』 제3호, 1992, p. 5).

그러나 실제로 동양철학에 관한 연구가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경우, 5편, 『철학연구』의 경우 5편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로학회, “유가와 대비 속에서 본 목자사상연구”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철학 편 42권 1호, 1996, p. 64.

해 법가는 신흥지주의 요구들을 대변하였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⁵⁾

3) 윤리학

세부분류	『철학연구』																총합							
	62	63	64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윤리학 일반		1	1				1	1							1			1					1	8
주체의 윤리학				4	1	2	2	5	2	4	1	1		2	2	4	3	7	6	12	7	7	106	
총합		1	1	4	1	2	3	6	6	9	6	3	3	5	7	5	4	11	7	14	7	9	114	

윤리학 연구의 경우, 주체의 윤리학이 전체 윤리학 연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주체의 윤리학의 주제별 논문 성과를 보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14편), ‘혁명적 양심·도덕적 의리’(15편), ‘수령에 대한 충실성·효성’(12편), ‘공산주의 도덕’(12편) 등을 비롯하여 ‘혁명적 신념’(3편), 정치와 도덕’(3편), ‘가정윤리’(3편), ‘군인정신’(2편)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외에 자본주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이나 전통사회의 윤리학에 관한 연구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25) 로학회, “고대 중국에서 법치사상의 형성발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철학편 42권3호, 1996, p. 50.

4) 기타 철학분야

		『철학연구』																『김대학보』				총합			
		62	63	64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미학	미학 일반	1	1																						2
	주체의 미학					1		1	1		2	2		2	3	1	2	2	3			3	3		37
심리학	심리학 일반	1				1	1													1	1				6
	주체의 심리학			1	1	1			1	1	2	1		1	4	2	1	1	5	1	2	1	2		42
논리학		1	1								1					1	1	2	1	2	2	4	2	4	25
종교학												1		1					1				2		6

이외의 일반철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보면, 미학의 경우도 주체의 미학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체르니шев스끼의 견해와 그 제한성”(『철학연구』, 2004년 3호), “미의 본질에 대한 맑스주의적 견해와 그 제한성”(『철학연구』, 2004년 4호) 등을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적 미학 및 자본주의 미학 등을 일부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미학 연구는 주체의 미학에 집중되어 있다.

한용운, “현실에 대한 사람의 미학 정서적 관계의 형성과 발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편), 제38권 제5호(1992)

김정본, “주체 미학관에 의한 미에 대한 해명”,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편), 제39권 제1호(1933)

한용운, “인간학에 관한 주체의 미학이론의 독창성”,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편), 제39권 제1호(1933)

서광웅, “주체의 미학관이 밝힌 미적 감정의 본질”, 『철학연구』제2호(2000)

심리학 연구의 경우 또한 “부르주아 심리학의 위기”(『철학연구』, 1987년 제2호), “심리연구에 있어서 수량화의 필요성”(『철학연구』, 2001년 제3호) 등 심리학 일반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전체 연구의 87.5% 정도가 주체의 심리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논리학의 경우는, 주체철학의 개입이 거의 없이 학술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논리학 논문에도 김일성 또는 김정일 교시가 인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논문의 내용은 순수이론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논리학 연구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접어들면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림준호, “논리적 사고능력 발전에서 개념습득의 의의”, 『철학연구』(2000, 제2호)

조순옥, “가정은 과학적 인식의 중요한 논리적 수법”, 『철학연구』(2002, 제1호)

강정순, “기호논리학 발전의 특징”, 『철학연구』(2003, 제2호)

장광현, “과학적 인식에서 이용되는 기호의 특징”, 『철학연구』(2004, 제4호)

김철현, “동일법칙의 기본요구”, 『철학연구』(2004, 제2호)

이외에 종교학 관련 논문은 극히 미미한 편인데, 불교연구(2편), 민족종교(1편), 기타종교(1편)등이 연구되었다.

IV. 시기별 북한 철학의 연구 추이 및 특성

1. 해방 후~1950년대 말: 소련철학의 학습기

이시기 북한사회에서 철학분야에서의 교육·연구 사업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학습을 어떻게 학습하고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의 개교와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 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북한 학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지식기반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의 ‘맑스-레닌주의 기본강좌’, ‘철학강좌’, ‘정치경제강좌’ 등은 소련에서 온 고문들이 직접 강의하였다. 또한 이 시기 김일성종합대학은 ‘맑스-레닌주의 까비넷’을 운영하고 1개월에 2차씩 교원들을 위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 강의를 진행하였다.²⁶⁾

1949년 3월 소련과 조선 간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은 소련의 학술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련의 많은 학술서적들이 수입되고 번역·출판되었다.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고문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는 소련 학자들로는 추뿌로브(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강좌의 고문), 빵그라토프(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강좌 소속교원들을 지도), 테베제브(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유물론 강의) 등이 있다.²⁷⁾

1952년 말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아직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연구 사업이 부족하고 관련 저서나 논문이 아주 적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우리 선조들이 써놓은 학술적 유산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견지로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²⁸⁾ 이러한 주장은 1956년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여기서 김일성은 해방 후 10년 동안 과학연구의 기초를 닦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함을 비판하고 과학연구 분야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²⁹⁾

26)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pp. 44-45.

27) 앞의 책, pp. 57-60.

28)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7권, p. 426 참조.

2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 10권, p. 229-300.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철학 연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었고 이시기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철학 연구는 1960년 초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게 된다. 1960년에는 『조선철학사』(상권)(정전석, 정성철, 김창원 공저)가 편찬·출판되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인민의 철학사상을 전면적으로 개괄한 첫 노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조선철학사』는 고조선시기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전파되기 전까지의 조선의 철학유산(유물론 철학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60년 1월 과학원 역사연구소 철학연구실은 『철학사』(상)를 출판하였다. 김후선, 기류린, 김창원, 김철희, 김화중, 최형록, 계병세 등 당대의 철학자들이 참여한 이 철학서는 조선 및 중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57년도 소련 과학원출판사 판 『철학사』, 1.2권을 정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³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조선 철학 연구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소련철학의 학습기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960년대 초반~1967년: 『철학연구』의 창간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창조적 적용

1961년 철학연구소의 창설은 북한에서의 철학연구가 본격화되는 전기를 맞게 된다. 1961년 철학연구소의 창설을 계기로 하여 북한에서 본격적인 철학 학술지인 『철학연구』가 1962년 창간되었다.³¹⁾

『철학연구』의 창간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철학연구』의 발간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교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제4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당시 과학을 가까운 시기에 세계적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철학사』(상), 과학원출판사, 1960, 서문에서 밝힘.

31) 1962년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창간일로 하고 있는 『철학연구』는 창간호 서문에 “축하문,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라는 김일성에 대한 헌사의 글을 실고 있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의 혁명적 개조와 경제문화 건설에서 이미 많은 귀중한 경험들을 축적하였습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이론적으로 개괄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 선전하여야 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민족문화의 유산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제때에 해명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회과학자들은 남조선 경제와 문화의 현 상태를 심오하게 연구하고 장차 그것을 복구 발전시킬 대책을 집체적으로 탐구하여야 하겠습니까.³²⁾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의 김일성 교시를 기점으로 하여 철학연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는 당과 인민이 혁명발전의 단계에서 얻은 경험을 철학적으로 개관함으로써 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키고 모범을 천명하는 문제이다. 당시까지도 북한 학계에서 철학 연구가 체계화되지 못했으며 당과 인민이 이룩한 실천적 경험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논문들이 극히 단편적인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에서는 철학연구 부족의 원인을 철학자들이 아직도 당적 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조주의, 형식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당적 사상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철학연구의 과제로 제기되었다.³³⁾

두 번째는 당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적시에 연구·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업은 1930년대 김일성에 의해 지도된 혁명전

3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 저작집』 15권, p. 231.

33) 『철학연구』, 1962년 1호(창간호), p. 4.

통을 철학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네 번째의 과업은 남한의 철학 및 사회학계의 동태를 일상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연구하며 분석·비판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우수한 철학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여기서 철학유산의 계승문제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제고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료 발굴 및 정리 사업이 철학계의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조선윤리사상사>, <조선자연과학사상사>, <조선사상통사>등 연구서 발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철학 학술지인 『철학연구』의 사명은 ‘그 무엇보다도 당적출판물으로써 당 정책과 노선의 충직한 선전자’로써의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근로대중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규정되었다.³⁴⁾ 따라서 『철학연구』의 발간을 통해 북한의 철학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출발점에서 이미 북한의 철학연구는 학문적 자율성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철학연구』의 집필 의도와 연구의 방향은 초기부터 ‘개별적인 연구’와 ‘말초적인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경계하고 있었으며 당 정책과 부합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집체적으로 할 것과 철학자들이 당의 “믿음직한 사상전사”가 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과학연구 역량을 계획적이며 집체적으로 발동하는 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종래에 일정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과업이 크고 많은데 비하여 역량이 부족할 때일수록 연구 사업에서의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근절하고 중심적인 연구문제 해결에 기본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두서너 명이 각각 별도로 연구 한다거나 어느 한 말초적인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지난날에는 적지 않았다. 또한 철학 집단으로서의 계획적 추진과 통제 사업이 부족하였던 결과는 철학 전문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동하지 못하는 사정을 시정

34) 위의 책, p. 5.

하게 못하였다. 35)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을 보면, 1962년에는 “울곡 이이 탄생 425주년 기념보고회”와 “역사적 유물론의 새로운 집필요강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발표논문으로는 “생산력 발전에서의 사상의식의 역할”, “우리나라 계급투쟁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원칙의 적용”등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에 관한 논문을 비롯하여, “혁명전통 교양의 위대한 생활력”,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승리”, “대 비약으로서의 천리마 운동”, “대안의 사업체계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철저한 구현이다.” 등 당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3. 1967년~1980년대 중반: 『철학연구』의 중단·주체철학의 이론적 체계화

1967년은 북한의 학문분야 전반이 그러했듯이, 철학연구 분야에도 급격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68년 조선중앙연감은 1967년의 과학 부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67년에 과학부문에서는 과학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과학연구사업과 사상수양을 결부하여 진행하는 등 당과 노동계급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인테리로서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³⁶⁾

당시 학술분야에서의 양대 과제는 “과학연구 사업에 있어서의 주체의 확립”과 “과학자들 속에서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1967년에 행해진 김일성의 교시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5) “과학원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철학연구』, 1962년 4호, p. 3.

36) 『조선중앙연감』(1968), p. 184.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은 ‘당 사상사업 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³⁷⁾을 통해 모든 과학 이론적 문제들은 반드시 주체사상에서 출발해야 하며, 결코 고전의 명제에 매달려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며, 사대주의적 편향에 빠져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독자적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이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인텔리들의 자유주의나 소부르주아사상을 비판하고 인텔리의 혁명화를 강조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967년 6월 19일 “우리의 인텔리들은 당과 노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연설을 통해 학자들 속에서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학자들이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함을 비판하였다. 또한 여기서 김일성은 인텔리들에 대한 혁명화를 위한 방안으로 철직, 처벌 보다는 자기비판, 호상비판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언급 자체가 이미 인텔리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암시하고 있었다.

인텔리 혁명화에 관한 이러한 입장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발표된 공화국 정강에서 다시 명확히 선언된다. “주체사상을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할 것을 선언한 이 발표문에서 김일성은 학문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과학연구 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과학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과학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자원, 자기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의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켜나갈

37) 여기서 김일성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문을 발표한다. 이 연설문은 김일성이 제시한 독자적인 혁명이론으로서 이후 주체사상에 입각한 독자적 혁명이론으로 이후 북한사회에서 3대 혁명론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일성 저작집』21권, pp. 259-276 참조

수 있습니다.³⁸⁾

이후 과학자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과학연구 사업과 사상교양을 결부하여 진행하는 등 지식인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³⁹⁾ 이러한 방향은 대학교육과정 속에서도 빠르게 적용되었다. 먼저, 대학교원들 자신들부터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화·노동계급화 하기 위한 학습에 뛰어들어야 했다. 또한 교과 과정안과 교수요강, 교재와 교과서들을 당의 유일사상에 일관되게 만드는 작업이 추진되었다.⁴⁰⁾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철학연구』의 정간 사태는 북한의 철학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학 전문학술지인 『철학연구』가 68년경부터 85년까지 출판이 중지되었다가 86년에 이르러서야 『철학연구』는 다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다.⁴¹⁾

『철학연구』의 정간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철학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들은 중단되었으며,⁴²⁾ 이 시기의 철학연구는 주로 ‘김일성의 위대성 연구’, ‘김일성의 노작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 시기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과제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선전하며 당의 혁명

38) 김일성,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의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김일성 저작집』 21권, p. 529.

39) 『조선중앙연감』(1968), p. 184.

40) 『조선중앙연감』(1969), p. 270.

41) 『철학연구』가 중단된 시기에 70년대 초 창간된 『사회과학』과 부정기적 간행물인 『철학논문집』이 철학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들 학술지에 게재된 철학논문들은 주체사상과 정치이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42) 철학학술지의 정간 사태를 통해 당시 북한 철학계의 변화 국면을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① 철학자들에 대한 사상검증 및 혁명화과정, 또는 정치적 숙청, ② 주체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위한 집체적 연구과정, ③ 사회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정당화적업에 몰두, 개별 연구의 금지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연구⁴³⁾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주요 연구들을 보면,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 역량인 우리 당의 창건자이다》, 《김일성동지는 우리나라에서의 첫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다》, 《김일성동지는 현시대의 세계혁명이론을 제시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 및 세계혁명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 위대한 생활력》 등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위대성에 관한 연구로 일관되어 있었다.⁴⁴⁾

이러한 학계의 변화는 대학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68년 이후 대학의 교과과정안과 교수요강, 교재와 교과서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되고 북한의 실정에 부합시키는 데 집중되었다.⁴⁵⁾ 또한 대학교육에서 수령의 교시와 노작을 연구하기 위한 교양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김일성동지 노작>, <조선로동당정책> 등의 과목에 대한 교수시간수가 늘어났으며 수령의 교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강연회, 학습토론회, 웅변대회 등이 개최되었다.⁴⁶⁾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당 역사, 철학, 정치경제학 등 모든 사회과목들은 주체사상을 해설 선전하는데 복무하게 된다.⁴⁷⁾

이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학문적 자율성마저도 완전히 소멸된다. 또한 이후의 북한 철학은 주체철학에 의한 해석으로 일관되기에 이른다.

43) 『김일성저작선집』, 3권, p. 127.

44) 『조선중앙연감』(1970), p. 289.

45) 『조선중앙연감』(1969), p. 270.

46) 『조선중앙연감』(1970), p. 279-288.

47) 『조선중앙연감』(1976), p. 338.

4.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체의 방법론에 의한 철학연구의 주제별 분화

『철학연구』의 재간행과 함께 북한의 철학연구는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철학연구는 크게 주체철학분야와 일반철학(‘철학의 매개분야’)의 다양한 분야들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일반철학의 경우의 연구 경향은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철학의 매 부문들을 연구체계화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세계철학연구의 경우,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이 주체적 관점에 따라 그 한계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조선철학연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조선철학사를 서술하고 있기는 하나, 주체적 관점에 따른 해석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근대 계몽기의 사상과 근대 부르주아사상을 반침략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평가하는 등 일반적 유물론적 해석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실학사상을 “자기 것에 대한 존중사상”으로 평가하는 등 주체적 관점에 따른 연구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리학, 미학, 심리학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여 이들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체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면서 철학연구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김정일의 후계체제구축의 정당화 작업에 철학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주체철학 연구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철학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86년 재 간행 되는 『철학연구』(86년 1호)는 서장에 김정일의 교시문으로 시작되는 한편, 후계자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⁴⁸⁾ 또한 1986년 간행된 『조선철학사개요』(최봉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에도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되고 있다. 김

48) 본 논문의 <자료 3> 참조.

정일의 교시가 김일성의 교시와 더불어 철학적 해석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는 방식은 1980년대 이후 북한철학계의 일반적 연구경향이 된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철학연구에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조선철학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단군조선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고조선, 부여의 사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당시 단군릉 발굴 등 고조선역사에 대한 재해석 작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철학의 연구에 있어서는 90년 초부터 자본주의 철학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자본주의 철학 비판으로 일관되고 있는 세계철학 연구의 증가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 내부의 사상적 동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사상침투에 대응하고자 하는 북한 사회의 고민을 보여준다.

윤리학의 경우도 90년대 들어서면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시기의 연구내용들을 보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등 유일영도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과 절대적 복종을 윤리화하는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 양심과 의리’에 대한 규범화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도덕’과 ‘의리’ 등 윤리적 당위성을 통해 인민들을 설득해 나가기 위한 이론화작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권력승계 이후 최근 북한 철학은 선군정치를 철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조선철학 연구의 경우 2000년에 들어와 특징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국방사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⁹⁾ 이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수광의 애국적 군사적 견해”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수광을 진보적 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49) 리순범, “이수광의 애국적 군사적 견해”, 『철학연구』 2004년, 4호; 김종훈, “유형원의 진보적인 국방사상” 『철학연구』, 2004, 제2호; 윤종관, “고구려의 애국적 상무사상의 특징” 『철학연구』, 2004, 제3호 등을 들 수 있다.

것을 ‘군사적 견해’라고 보고 있다. 이수광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담은 일련의 견해들을 제기”했으며 “발전된 무기가 전쟁승패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과 “선진적인 무기 이용을 중시할 것을 강조”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방사상이란 “자기 것에 대한 애착”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연구경향은 2000년대 북한의 대표적 정치담론으로 등장하게 된 선군정치와 정당성을 고유의 전통 철학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또한 최근 철학연구 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는 논리학 연구이다. 논리학의 경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기호논리학 분야 등 주로 컴퓨터 언어, 텍스트 자동화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학 이론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 북한당국이 IT산업에 주력함에 따라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⁵¹⁾

V. 맺는말

이 연구는 북한 철학분야의 학문체계 및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먼저 북한 철학분야의 연구기반과 철학의 분류 방식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와 다른 북한 철학의 특징적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와 『철학연구』라는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철학학술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단 이

50) 리순범, “이수광의 애국적 군사적 견해”, pp. 41-42.

51) 컴퓨터 공학에 대한 북한사회의 관심은 2001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 과학대학을 신설한데서도 알 수 있다. 컴퓨터과학대학은 컴퓨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단과대학으로 신설되었는데, 컴퓨터과학과, 지능정보처리학과, 컴퓨터조종학과 등을 두고 있다.

후, 현재까지의 북한 철학의 연구 성과와 그 흐름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다.

북한의 철학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1960년대 초반 철학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전문학술지 『철학연구』가 발간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의 개교 이후 철학관련 강좌들이 개설되기는 했지만 1950년대 후반까지도 북한에서의 철학연구는 소련철학을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편 1960년대 초반에 철학연구의 기틀이 만들어 지기는 했으나, 1967년을 전후하여 학문분야에서의 교조주의와 수정주의 타파를 기치로 하여 취해진 ‘지식인의 혁명화’ 사업과 함께 철학분야에서의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는 바로 주체사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던 시기였으며 북한의 철학연구는 주체사상연구에 국한된다.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이 완료되고 후계체제가 구축된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철학연구도 학문적 분화과정을 거치며 조선철학, 세계철학, 미학, 논리학, 윤리학, 종교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북한 철학의 학문적 정체성이란 “주체철학을 방법론적 지침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함에 따라 학문적 객관성과 보편성에서 일탈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철학연구 분야에서 조선철학, 세계철학, 미학, 윤리학, 심리학, 논리학, 종교학 분야의 연구들이 나름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일정한 연구 성과물들을 도출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 북한철학의 제 분야들이 유물론적 시각과 주체철학의 관점에 국한됨으로써 학문적 논의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에서 철학연구가 본격화되던 60년대 초반부터 학술적 연구의 방향이 ‘당 정책과 부합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할 것과 함께 철학자는 ‘사상적 전사’가 되어야 할 것을 명시한 이후 현재까

지 일관되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철학연구에 있어서의 ‘당적 사상체계의 구축’과 철학유산의 계승문제에 있어서 ‘주체의 확립’의 원칙은 학자들이 견지해야할 기본 원칙이었으며 이러한 기준은 모든 학술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연구자들의 이견이나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며,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나 당의 방침과 일치하는 방향의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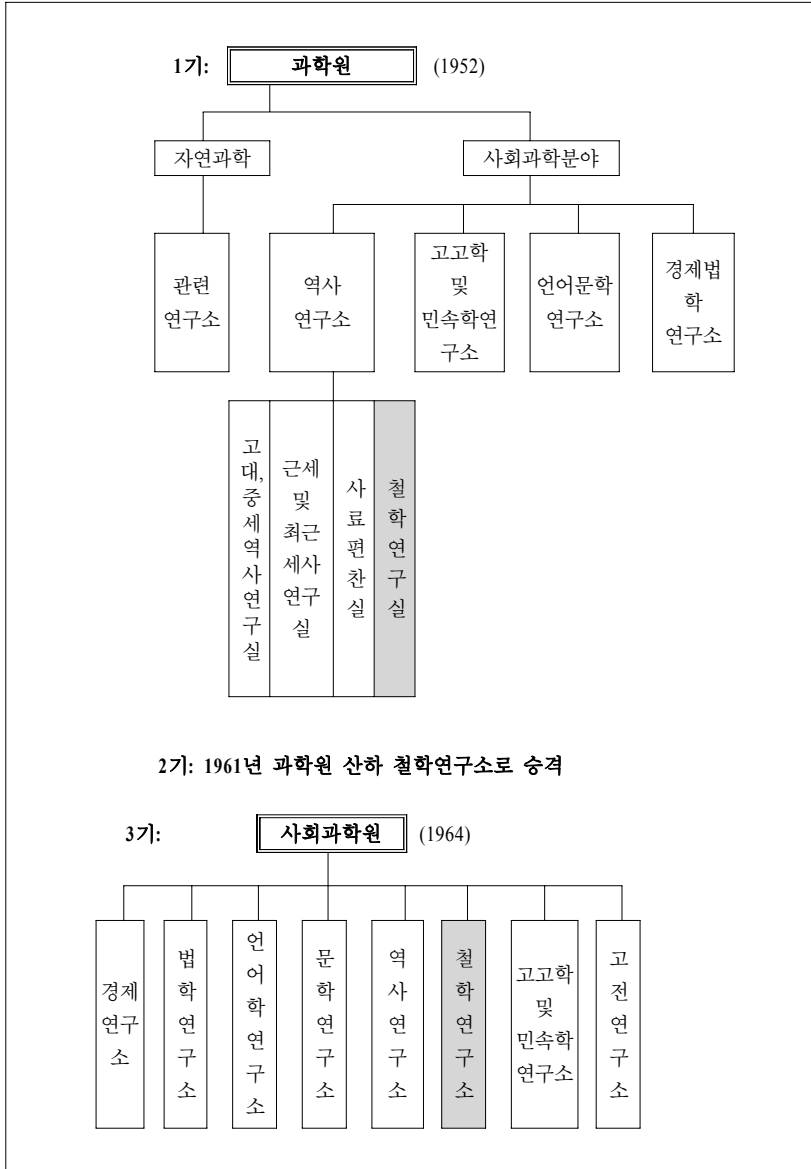
최근 북한의 철학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연구 경향들은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는 ‘선군정치’와 그 이념인 ‘선군사상’에 관한 연구들이 주체철학연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철학의 연구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철학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경향들이 두드러지는데 전통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사상’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며 선군정치의 이론적 정당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북한사회에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란 여전히 정치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기초로서 도구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북한의 철학연구 분야에서도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최근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북한사회의 변화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IT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원리에 필요한 수리논리학, 기호논리학 등의 연구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비록 경제발전과 직결된 분야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사회에서도 실용 학문의 요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 철학관련 논문의 분류와 주제별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북한 철학 연구의 큰 흐름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세부 분야들의 개별적 논의들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이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북한 철학체계에 대한 현

황 파악과 학술논문들에 대한 기초연구가 개별 분야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 1> 철학연구소의 변천 과정



<자료 2> 『철학연구』 창간호 목차 내용

철학연구 (1962년 제1호)

차례

<철학 연구>를 발간하며

론문

- 공업 관리 운영 지도체계의 개편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과 지도 수준
간의 모순의 해결 (김양선)
-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승리 (김화중)
- 리규보의 유물론적 철학사상 (최봉익)
-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부르주아 사회학 리본의 반동적 본질과 그에
대한 비판 (철학 학사 김철희)

질의 응답

에네르기 보존 및 전환의 법칙이 가지는 철학적 의의

학계 소식

우리 당 정책의 연구에서 달성한 새로운 성과
현대 생물학 및 의학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척한 위대한 발견
조선이 낳은 탁월한 사상가 룡곡 리이 탄생 425주년 기념 보고회

<자료 3> 『철학연구』 1986년 1호 목차(68년 중단 후 복간 첫 호)

철학연구 (1986년 제1호)

차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은 주체형의 당건설 사상과 이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
(준박사, 부교수 리수근)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당의 위업계승의 기본
(박사 리상걸)

주체사상에 의한 철학의 근본문제의 새로운 제기과 해결은 철학박전에서의 위대한 전환
(준박사, 부교수 김천식)

자주성과 자주적인 사상의식
(박사 리성준)

사회적 운동의 원천에 대한 주체적 리해
(준박사 박일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혁명운동의 본성에 맞는 혁명의 지도적 원칙
(박사 김창원)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생산력발전의 근본원인과 동력
(준박사, 부교수 김영춘)

강좌

도덕의 본질과 역할
(준박사, 부교수 김완선)

참고문헌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49~2004.
-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56.
-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1959.
- 『도서분류표(군중도서관용)』, 평양: 국립중앙도서관, 1964.
-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2005.
- 『조선말대사전』, 평양: 1962.
- 『철학사전』, 평양 :1970/1985.
- 『철학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2~2004.
- 『철학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59/1975/1984/1992/1993.
- 『조선신보』 2001년 2월 5일, 1면.
- 『민주조선』 2001년 2월 12일, 1면.
- 김교빈, “남북한 철학의 비교와 반성”, 『인문과학연구』 제3호, 1998.
- 김교빈, “남북철학계의 시각차와 북한 철학계의 변화에 대한 검토”, 『인문논총』 제11집, 1992.
- 김영수, “북한에서의 실학연구 실태: 주요 저작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1989.
- 김원식, 이신철, 한승완, “최근 북한의 이념 변화와 동향 - 『철학연구』 및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를 중심으로”, 『정책연구』(2005년 여름).
-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7권.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10권.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저작집』 15권.

- 김일성,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의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김일성저작집』 21권.
- 류병덕, “남과 북의 철학관”, 『철학연구』 제60집, 1997.
- 선우현, “민족통일과 북한철학 연구의 의미”, 『인문학연구』 제4호, 2000.
- 엄정식, “북한의 철학체계: 그 사상적 개관”, 『동아연구』 33집, 1997.
- 엄정식, “북한의 철학체계와 그 현실”, 『동아연구』 35집, 1998.
- 이영철, “남한의 철학사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민족문제논총』 제2집, 1991.
- 정세근, “분단 50년 전후 이북의 철학과 문화”, 『철학과 현실』 34집, 1997.
- 정진석·정성철·김창원, 『조선철학사(상)』,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 정성철, 『조선철학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철학사』(상), 과학원출판사, 1960.
- 최봉익, 『조선철학사개요』,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최봉익, 『조선철학사』,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1.
- 지교현, 심경호 외,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 - 철학종교·어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ABSTRACT

North Korean Philosophy
An Analysis of the Tendencies of Research

Joen, Mi-Y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academic systems of philosophy and its tendencies of philosophical research in North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n philosophy by focusing on the North Korean's most authoritative Journals of philosophy, *Research of Philosophy* and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In North Korea, research on philosophy became established and started to publish papers in the early 60s when all of North Korean society mobilized around the dictatorial government structure. Consequently North Korean Philosophy became a means to develop their political ideology. North Korean philosophy was constituted by *Joseon* philosophy, World philosophy, Esthetics, Ethics, Psychology, Logic, and Philosophy of religion. North Korean philosophical circles produced a large quantity of output every year in various fields of philosophy. But, most philosophical opinions were based on 'Juche Philosophy'. Evidently, there is neither controversy nor academic argument in North Korean academic circles. In recent trends, North Korean philosophy indicates that the North Korean society needs to focus on more practical issues.

Key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Philosophy, Research of Philosophy, North Korean Studies, History of Philosophy

